

CJ제일제당

혹서기 강화사료 공급서비스 실시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대표 정근상)은 길어지는 혹서기에 대비한 여름철 강화사료 공급에 나섰다. 작년에 이어서 올 여름도,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축우파트에서는 이러한 낙농 사양가의 고민해결과 젖소의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고자 여름철 강화사료를 6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추 발효열을 억제하고, 섬유소 소화율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지속 발생하는 독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품투자도 병행했다. 이밖에 슈퍼메가믹스 프로모션을 통하여 여름철 목장 방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목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성사료

하절기 보강사료 공급 및 벌크빈 크리닝 서비스 전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사료 섭취량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하절기 보강사료는 체열발생을 줄이면서 영양소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내산 곡류 원료를 우성사료만의 특허 받은 공법으로 특수 가공하여 활용하는 한편 네덜란드 기술제휴연구소 'SFR(Scholthorst Feed Research)'의 자문을 통한 하절기에 적합한 아미노산/에너지 비율을 적용하여 사료섭취량 감소에서 기인하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료가 입고되는 부두부터 농장 급이기 관리까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에도 돌입했다. ☺

